

광주시, 내년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

복지부 첫 선정 ... 다음달 위탁 운영 의료기관 공모

5600여 환자 체계적 관리, 연구·치료 등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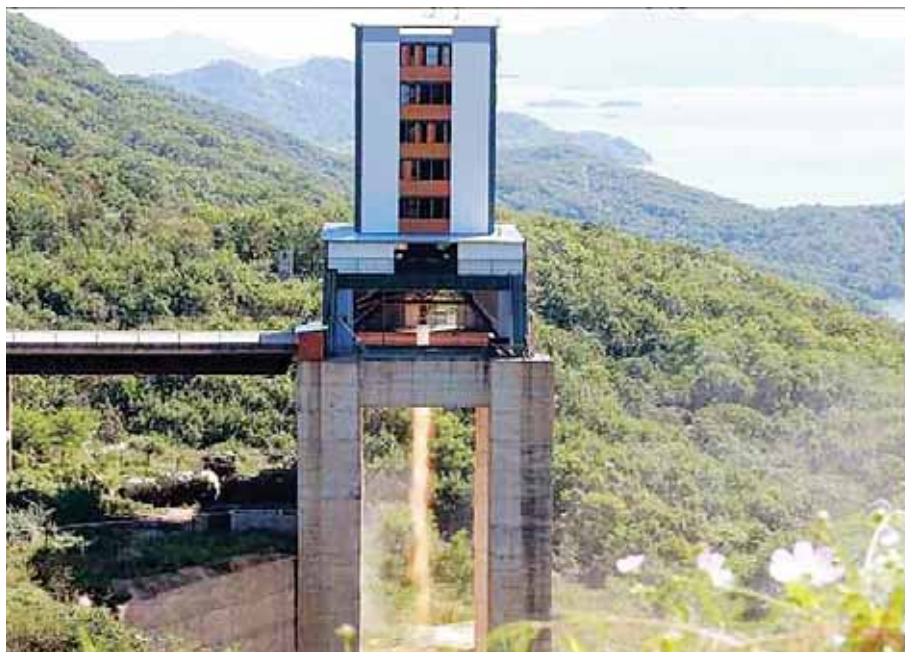
오늘 WHO ‘치매 극복의 날’

광주시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해마다 늘고 있는 치매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광역치매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 광역치매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할 의료기관을 선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 치료 등을 총괄하는 의료기관

이 설치되는 것은 처음이다. 광역치매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치매관리사업 기획, 치매연구, 치매상담센터·요양시설 등의 기술 지원을 하게 된다. 치매 관련 자원조사 및 연계시스템 마련, 중앙치매센터와 공동연구 수행 등의 역할도 한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치매환자도 급증하는 추세로 광주시에 등록된 환자만 5659명에 달한다. 경제적 여건 등으로 등록하

지 않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환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 노인 10명 중 2명이 앓고 있다. 혈압, 당뇨 등 5대 만성질환보다 발병 인원과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는 광역치매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할 기관을 오는 10월10일부터 19일까지 공모한다. 치매센터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위탁 기간은 내년부터 최대 3년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5일 오후 시정 4

층 세미나실에서 광역치매센터 위탁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치매 조기발견 및 치료 약제비 지원 등 기존 서비스 제공 사업의 범주를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치매사업 기획, 연구 등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광역치매센터 설치 지자체로 선정돼 국비 5억 67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지방비 2억 4300만원을 더해 설치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북 신형 로켓- ICBM 엔진 분출 시험 비교

한이 밝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분출 시험 장면(오른쪽)을 비교한 것으로, 이번 엔진의 불꽃 길이가 다소 길어진 것으로 보여 추진력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북 노동신문은 20일 김정은이 서해 위성 발사장을 찾아 새형(신형)의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발동기(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지도했다며 1면에 관련 컬러 사진 9장을 공개했다. 사진은 이번 엔진 분출 시험 장면(왼쪽)과 지난 4월 북한이 밝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분출 시험 장면(오른쪽)을 비교한 것으로, 이번 엔진의 불꽃 길이가 다소 길어진 것으로 보여 추진력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송정역~광주역 서틀열차 달린다

광주시·코레일, 12월 수서발 고속열차 개통 맞춰 추진

극락강역 거쳐 하루 왕복 28회 ... 광주역 활성화 기대

광주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서틀열차가 운행된다. 광주시는 20일 “코레일과 운행경비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 조율을 거쳐 오는 12월 수서발 고속열차(SRT) 개통에 맞춰 광주 송정역과 광주역 간 서틀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두 역간 운행되는 서틀열차는 현재 동일노선에 운행되고 있는 새마을·무궁화호 열차의 운행 안전성 등을 고려해 극락강역에 중간 정차하면서 하루 왕복 28회 운행될 예정이다.

운행거리는 14km, 소요 시간은 평균 18분이다. 요금은 무궁화호 기본요금인 2600원을 중심으로 코레일 측과 논의 중이다. 두 역 간 서틀열차가 운행되면 그동안 동구와 북구민이 KTX를 이용하는데 걸림돌이었던 시간(50분)과 비용(택시기준 1만2000원)이 큰 폭으로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송수단이 다양해져 광주송정역의 교통혼잡 완화와 광주역의 교통기능의 회복은 물론, 광주역 주변 활성화도 기대된

다. 그동안 두 역간 서틀열차 운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광주역 기능 활성화를 위한 민관 TF’에서도 의견이 제시 됐었다. 광주시는 그동안의 의견 등을 종합해 지난 3월 운장현 시장이 국토부장관을 만나 서틀열차 운행을 건의하는 등 간부들이 수차례 국토부와 코레일을 방문해 운행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공감대 형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운장현 광주시장은 “이번 서틀열차 운행 결정은 교통편의는 물론 도심활성화와 도시관광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中 청화대

12월 교류협력 포럼

광주시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차이나프렌들리’(중국 친화정책)의 또 하나의 결실이 이뤄진다. 광주시는 중국 청화(淸華)대학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포럼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포럼 주제는 광주시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자동차 분야다. 잠정적으로 12월1일부터 3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기차, 수소차 등 국내외 친환경 자동차의 현주소와 미래, 광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모색한다. 친환경 자동차 관련 세미나와 토론, 완성차 공장방문 등이 있을 예정이다. 운장현 광주시장은 지난해 10월, 중국 명문 청화대학교에서 초청 강연을 한 뒤 포럼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목포·고흥·담양·장성·완도 등 5개 시군

유무형 자산 문화자원으로 키운다

지발위 창조지역사업 선정

목포, 고흥, 담양, 장성, 완도 등 5개 시·군의 유·무형 자산을 문화자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 추진된다. 전남도는 20일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모한 2017년 신규 지원 창조지역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7억원(전국 28개 사업 32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사업인 행복생활권사업 가운데 하나인 창조지역사업은 지역 고유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창의적 발상을 통해 주민소득 창출, 지역문화 전승·향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이다. 선정된 사업은 고흥군의 ‘이야기 천국 창조사업’, 담양군의 ‘인문학 디자인 사업’, 장성군의 ‘궁정의 컬러마케팅 노란예술품을 감상여행 사업’, 목포시의 ‘숨으로 뿜인 섬 고히도 여행 사업’, 완도군의 ‘운 가족이 즐기는 바다의 향 상상완

도 사업’ 등이다. 고흥군은 ‘이야기 천국 창조사업’을 통해 설화마을과 인형극 등을 운영, 고흥을 설화산업의 메카로, 담양군은 인문학향당과 글소리 학습마을을 기반으로 한 ‘인문학 디자인 사업’을 통해 담양을 인문학 생태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장성군은 옐로우시티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노란예술품을 감상여행 사업’을 통해 감성디자인단을 운영하며, 목포시의 ‘숨으로 뿜인 섬 고히도 여행 사업’을 통해 고히도와 목화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완도군의 ‘상상완도 사업’은 섬에서 채취한 재료로 주민이 직접 만든 특산물 시장을 운영하고, 마을 밥상을 이용해 지역에 활기를 주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2017년 창조지역사업 공모에 대비해 경쟁력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을 추진해왔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연료절감장치 효과 ‘특독’

연료비 평균 7.9% 줄어

광주지역 모든 시내버스에 설치된 연료절감장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체 시내버스 1041대에 연료절감 장치를 장착해 운행한 결과 7월까지 3개월간 연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7.9% 줄었다. 연비 개선율은 ▲5월 9.3% ▲6월 8.4% ▲7월 6.0%를 기록했으며, 연료비 절감액은 월별로 1억9000여만원, 1억 7000여만원, 1억3000여만원이었다. 특히 올해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차량 내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가운데 거둔 절감 효과라서 더 의미 있다고 시는 자랑했다. 이 장치는 내비게이션과 비슷한 형태

로 버스 속도와 운행상태를 감지하고 엔진효율을 계산해 최적의 변속 시점을 알려준다. 급출발과 급제동 등 연료 과소비 운전 행태 개선을 돕는다. 업체가 무상으로 설치한 뒤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연료비 절감액은 시, 버스회사, 설치업체가 각각 50%, 13%, 37% 비율로 배분한다. 시는 시내버스 업체 임직원과 운전원들의 더 적극적인 장치 활용을 권장하고 운수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평균 8~10% 정도 연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간 예상 연료비 400억원 중 30억~40억원을 아끼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 의료관광 시장 개척 몽골 방문

윤장현 광주시장이 몽골을 방문해 의료관광 등 시장 개척에 나선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 시장은 21일부터 5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두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벌인다. 이번 방문은 한국과 몽골 수교 26주년을 맞아 이뤄진 것으로, 광주시는 울란바토르시와 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몽골 시장 개척에 나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 시장은 보건재육부와 문화부 장관 등 몽골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의료·문화·뷰티·관광 분야 등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23일에는 현지 의료인, 여행사, 에이전시 등을 대상으로 의료관광·뷰티산업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2년

1954 ~ 2016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수	시	정	시
인문	신 학 과	40	1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4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8	1		
	유아교육과	19	1		
예능	음악학과	10	5		
	실용음악학과	17	1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대학원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지원자로서 신학관련 학과만 해당됨)

① 원서접수 : 2016. 10. 25(화) ~ 11. 1(화)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16. 11. 4(금) 오후 3시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6. 10. 25(화) ~ 11. 8(화)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2016. 11. 11(금) 오후 2시30분
	박사	신학과(Ph.D.)	6	2016. 11. 11(금) 오전 9시 40분
		목회학과(D.Min.)	2	
		신학과(Th.M.)	25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25	2016. 11. 12(토) 오후 2시40분
	유아교육학과(M.Ed.)	1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통합예술치료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2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2016. 11. 12(토) 오후 2시 40분
	한국어교원학과(M.A.)	20		
국제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광신대학교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